

태광그룹 이채널에서 근무하는 고민균 씨 책을 제대로 고른다면 책 읽기도 수월하죠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태광그룹의 이채널에서 근무하는 고민균(34) 씨. 초등학교 때부터 다독가로 알려졌지만 24시간도 모자른 직장생활에서 잠시 책과 동떨어졌던 삶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장인을 위한 책 읽기(BizBook)' 클럽에 들어가 예전의 다독가로서의 삶을 꾸리고 있다. BizBook 강남스터디 지기인 그는 멤버들과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정해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진정한 책 읽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그는 딱 세 권의 책을 들고 인터뷰 장소에 왔다. 현재 읽고 있다는 《다산선생의 지식경영법》, 깊은 사유의 원천인 《칼의 노래》, 혼자 읽기에는 아까워 독자들에게 추천한다는 《책 읽는 책》이다. 《칼의 노래》의 표지를 열어보니 2004년에 샀던 영수증이 책갈피처럼 꽂혀 있었다. "2004년에 통영으로 휴가를 떠나면서 읽었는데, 영웅 이순신도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 습관이 배인 그가 한번도 줄을 긋지 않고 읽은 책이다. 그만큼 줄 그을 세도 없이 책에 매료됐다는 것.

혼자 읽기 아까운 책, 《책 읽는 책》은 "머릿말에 저자가 말한 대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읽기를 권하는 책"이라며, 책 읽기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꼭 읽어볼 만하다고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는 세상에 "꼭 읽어야 할 책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추천도서는 참고일 뿐이고, 무엇보다 '책 고르는 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책을 제대로 고른다면 책읽기도 수월하다"는 것이다.

한 달에 최소한 다섯 권을 읽는다는 고민균 씨의 책 고르는 법은 이렇다. "십 분 거리에 있는 서점에 점심시간마다 들러 신간을 두루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책은 일단 수첩에 적어요. 그리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죠. 매일 서점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신간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흥미를 갖고 보되 나한테 맞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사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확 끌리는 책은 일단 사고 봅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충동구매가 좀 심하죠. 당장 와 닿지는 않지만 꼭 읽어 봐야겠다고 느낀 책은 목록을 작성해 놓고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구매해서 읽는 책,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 전자책으로 보는 책'이다. 경제경영서는 구매해서 읽고, 두꺼운 인문서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다. 이유는 어려운 인문서는 마감일이 걸려 있으면 어떡해서든 읽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복잡한 버스 안에서 PDA를 이용해 전자책으로 읽는다.

난이도가 높은 책을 포기하지 않고 읽는 방법에 대해 "이 책에 담긴 지식을 모두 소화하겠다, 머릿속에 지식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을 일단 없애라"고 충고한다. 그는 일단 밑줄을 그어가며 초벌읽기를 하고, 시간을 내서 밑줄 친 부분을 노트북에 옮기고 나서 다시 읽는다. 즉 한 권의 책을 세 번 읽는 셈이다. **▶▶**

